

# 창문 안팎을 통해 반추해본 ‘耳順’의 삶

이순

## 허달용 ‘창문 밖 풍경, 창문 안 삶’

20일까지 동구 ‘예술공간 집’서 5월 사적지 국군통합병원 모티브 ‘오월의 창’ 등 ‘창’ 매개 작품 선배

광주에서 민중미술을 이끌어온 허달용 작가가 ‘이순(耳順)’을 맞아 개인전 ‘창문 밖 풍경, 창문 안의 삶’을 연다.

허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이순의 삶을 반추하며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다짐을 한다. 개인전은 8일 시작해 20일까지 갤러리 ‘예술공간 집’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순’은 귀가 순해진다는 뜻으로 나이 60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순에 대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60세가 된 허 작가는 지난 삶 동안 자신의 작품세계를 규정하던 많은 것들에

대해 성찰하고 더 나아가고자 한다. 허 작가는 광주에서 민중화가로서 굴곡졌던 지난 삶을 창문 안으로,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삶을 창문 밖의 풍경으로 묘사했다. 창문과 이순은 그 경계선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시작은 옛 국군통합병원이었다. 옛 국군통합병원은 1980년 5월 당시 고문당한 대학생·시민들이 조사와 치료를 받았던 공간으로 5·18민주화운동사적지 중 하나다. 평소에는 출입이 통제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

허 작가는 “40년 넘게 홀로 남겨진 옛 국군통합병원을 답사하면서 과거 환자들이 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했다”며 “지난 2021년 봄, 빛도 잘 들지 않은 창문 안 공간은 폐허가 됐고 스산했지만, 창문 밖은 따뜻한 봄볕이 찬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창밖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현실이 이순을 맞은 나의 모습과 연결됐다.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창문은 작가 자신의 경계와도 같이 인식됐고 시대와 세



허달용 작 ‘오월의 창’/200x130cm/한지에 수묵채색/2022.

월의 먼지가 낀 창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제는 그 유리창을 걷어내고 세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이처럼 ‘창’이라는 틀을 사이에 두고 바라본 세상의 다양한

풍경들이다. 때론 유리창이어서, 또 때로는 콘크리트 담벼락을 끼고 있어서 몰랐던 사실들을 깨닫는 나이가 되어서 ‘다름’을 보듬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마음을 담았다. 맑고 깨끗했던 유리창에 닳여지지 않은 이물이 끼고 나니 조금씩 인식되

는 창문을 느끼며 스스로의 벽을 허물고 빛과 온기를 채우고자 한 다짐이다. 지난 해부터 준비해 온 대작 위주로 준비했으며 ‘오월의 창(2022)’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허 작가는 “내가 내 안의 벽을 스스로 허물어야만 빛도 온기도 스며들 수 있다”며 “이제 60이 됐다. 어떠한 일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해도 곧 이해가 될 정도로 연륜이 쌓였다고 하는데, 내 삶이 그러한가? 다시금 되짚어본다”고 소회를 말했다.

허달용 작가는 ‘오월전’, ‘아트광주’, ‘묘정’, ‘BLACK & WHITE’, ‘노무현 서거 9주년 산이 된 바보 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진행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했으며, 전남대 대통령 기록화 제작수상원전미술상을 수상했다. 허 작가는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이사장과 광주시 혁신위원, 광주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 회원, 연진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ACC,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출·작가 등 공연분야 4팀 선발 내달 3일까지... 1500만원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2023년 ACC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레지던시) 공연 분야’에 참여할 예술인을 오는 3월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ACC 스토리 공모전에 당선된 예술인 또는 도시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예술인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출가·안무가·작곡가 등 공연분야 창작자 2팀과 아이디어를 대본으로 발전시킬 작가 2팀 등 모두 4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ACC가 추구하는 공연예술의 창의성과 동시대적 담론을 기반으로 향후 예술극장의 작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연 분야의 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ACC는 1차 서류와 2차 면접심사를 거친 뒤 오는 4월 중 최종합격자를 ACC 누리집에 발표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입주기간 동안 공용 작업공간과 숙소는 물론 6개월 간 팀당 매달 200만원의 창작활동

비와 작품별 1500만원의 프로젝트 제작비를 지원 받는다. ACC 무대기술 장비와 개별 전문가 상담 및 지도, 주제연구 강연, 광주 지역 탐방, 예술인 교류 행사 등에도 참여해 작품 개발에 도움을 받는다.

레지던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오는 11월 ACC 예술극장에서 열릴 발표회(쇼케이스)에서 선을 보인다.

‘ACC 레지던시 공연분야’는 공연 예술의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품 발굴과 작품 제작을 위한 연구, 창작 및 개발, 지도 등 공연 작품의 실현 전 창작 단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ACC 예술극장의 아시아성과 동시대성을 담은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며 매년 공모로 창작자를 선정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http://www.acc.go.kr)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https://www.acc.go.kr)과 전화문의(062-601-4460)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 서양화가 김병모 회고전 ‘그날 까지도’

아들 정훈씨, 유작 기획전 마련 12일까지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강렬하고 절제된 색채로 대자연의 압축된 작품을 선보인 서양화가 김병모 작가가 세상을 떠나지 5년이 됐다. 이에 김병모 작가가 타계 5주년을 기념한 회고전시가 열리고 있다.

김병모 회고전 ‘그날 까지도(사진)’가 오는 12일까지 화순군립 석봉미술관에서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무다.

이번 회고전은 고 김병모 작가의 아들 정훈 씨가 마련했으며 현장에서 고인의 작품 94점(서양화 74점, 조각 9점, 수채화 및 드로잉 11점)을 감상할 수 있다. 가족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 1/4 정도를 주렸다.

이번 전시는 김병모 작가의 20대 학창



김병모 회고전 '그날 까지도' 전

시절에 그린 풍경화부터 대한민국미술대에 출품했던 30대 시기의 인물화, 야외 스케치를 다니며 직접 마주한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40-50대 시기의 작품들, 작업실에 머물며 구성적 실험과 간결하게 응축된 선의 움직임을 표현했던 60대 시기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특히 김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남긴 마지막 작품 ‘구름을 지나서’ 또한 엿볼 수 있다.

김병모 작가는 1949년 남원에서 태어나 조대부고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조대부고 미술교사로 지내면서 광주에서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교사 정년퇴직 이후에는 동구 지산동에서 갤러리K를 운영하다 2019년 향년 71세로 타계했다. 전남 중심으로 자연으로부터 얻은 감동을 예술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화폭에 담았다는 평을 받는다.

아들 정훈 씨는 “똥똥했던 작가의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작가의 일생을 시간대별로 작품을 전시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뜻깊은 전시회가 됐다. 특히 현재 나의 나이 때의 아버지가 그랬던 작품을 보면서 내 삶을 반추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서포터즈 모집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재)광주비엔날레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활동할 글로벌 서포터즈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이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서포터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최대 10명이 전시가 폐막하는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미지, 영상 두 분야로 나눠 선발하며 소정의 활동비, 전시 관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이달 중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매월 1회 이상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관련된 흥미로운 콘텐츠를 취재해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는 미션을 수행하

게 된다. 영문 콘텐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접수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join\_us@gwangjubienale.org)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www.gwangjubienale.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홍보마케팅부(062-608-4224)。

박양우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사는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모집을 통해 국내외로 행사를 폭 넓게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비엔날레가 역동적인 현대미술 현장에서 젊은 층과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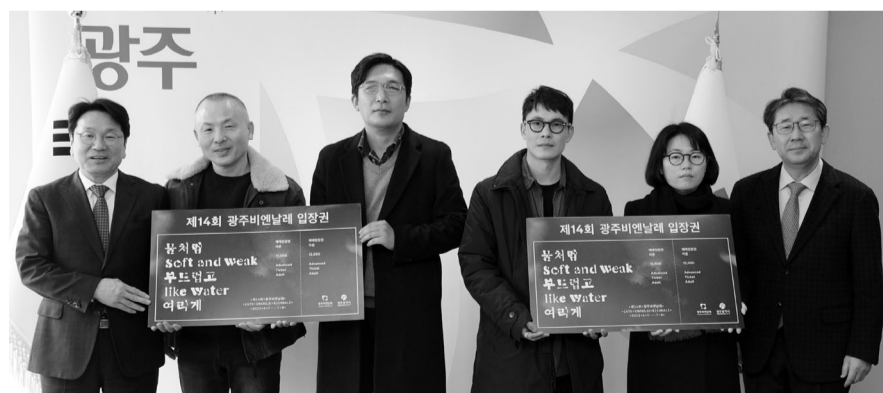
강 시장 “지역 작가들의 산실”

(재)광주비엔날레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 참여작가를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광주시청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를 비롯 역대 참여작가를 만났다.

이날 자리에는 올해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유지원 작가, 2000년 제3회와 2012년 제9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강운 작가, 2012년 제9회와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박상화 작가, 2016년 11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김철아 작가 등이 참석했다.

역대 참여작가들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구입했으며 광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7일 광주시청에서 광주비엔날레 역대 참여작가를 만나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전달했다.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비엔날레의 도시 광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힘든 작업을 묵묵히 지속해 온 지역 작가들이 있었다”며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이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더욱 빛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개(soft and weak like water)’는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지에서 개최된다.

도선인 기자